

# 세계 도시의 유명 교량을 찾아서 - 보고, 느끼고, 즐기는 교량들 -

## Seeking for the Better Bridge



글 / 李鶴榮

(Lee, Hak Young)

건축사공기술사,

(주)우림 엔지니어링 고문,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E-mail:hykor@netian.com

In this special issue, I'm very honored to introduce "Seeking for the better bridge in the world city". Surely, so called best bridge is the reason which has got some attraction such as a fine view, good design, and some park for relaxation. Five proposed bridges such as Golden gate bridge, Alexander III bridge, Brooklyn bridge, Fabricio bridge and Tower bridge I've ever seen are very good impression among my tour.

이 다리를 보지 않았다면, 이 도시를 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애정이 가는 다리가 우리에게 하나라도 있는가? 필자는 이런 물음에 대하여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대답을 찾기가 어렵다.

서울의 젓줄인 한강 위에 김포 대교를 위시하여 팔당 대교에 이르기까지 벌써 27개의 교량이 설치되어있다. 강철을 사용한 강교, 사장교, 트러스교 등 강을 건너기 위한 각종 다리들은 교량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데, 그래도 다리가 부족한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이 전시장 다리들은 오로지 도로로서의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보고, 느끼고, 즐기고, 머물 곳이 없는 통과 일방 도로로만 느껴 질 뿐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네의 다리들은 지나가는 사람이나 관광객들에게 낭만이나 추억으로 심겨진다는 것은 분에 넘치는 사치 일뿐 강을 건너기 위한

일차적인 목표만을 위한 삭막한 구조물에 지나지 않으니...

이것이 비단 필자만이 갖는 지나친 생각일까?

인구 천만을 넘는 거대도시 서울...

88올림픽을 치른 역사적 도시 서울...

2002년 월드컵 개막을 목전에 둔 서울...

주어진 여건이나, 역사적 명성에 비하여 서울은 세계인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고 물가, 불친절, 대기 공해 등 부정적인 요소 외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우리의 수도는 너무나 삭막하고, 아름다운 다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다.

우리도 이제는 아름다운 다리, 낭만이 넘치는

다리, 머물고 싶은 다리, 시민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

한 시대의 문화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전통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아름다운 문명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다.

이제 세계 곳곳의 유명한 교량을 살펴보면, 왜 이들 교량들이 유명세를 자랑하는지...

왜 이곳들이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싶어 하는 관광의 명소가 되었는가를 돌아보고자 한다.

### 1. 잊을 수 없는 콜문교의 볼라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중의 하나인 콜문교(Golden Gate Bridge)는 1937년 5월에 개통되었고, 인터내셔널 오렌지라는 붉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저녁 석양에 비친 색깔이 황금색을 띤다고 하여 골든 게이트란 이름이 부쳐졌다고 한다.



〈사진 1〉 콜문교의 외관

전장이 2,737미터에 주탑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67미터. 북쪽으로 태평양의 바람을 맞으면서, 비스타 포인트(Vista Point)란 곳에 도착하여 사방을 둘러보니 대양과 대륙이 마치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듯하다. 기념사진을 찍어보니, 훌륭한 명당이 바로 이런 곳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휴식이 있었고, 전망이 있었으며, 먹고, 마실 자리가 있었다. 역시 머물고 싶은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을 감탄하면서 여정에 메인 시간의 흐름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다리를 돌아 나오니 황금색 다리는 사후 유지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강재에 매달려 무엇인가 열심히 닦아내고, 칠을 하면서 애지중지 관리하는 모습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저들의 그 같은 노력이 있기에, 지나는 사람들이나 혹은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며 통행하는 차량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리라.

다리가 끝나는 남쪽의 프리시디오(Presidio)란 곳에 도착하니, 넓은 들판의 녹지대가 눈앞에 나타났다. 약 6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녹지대는 일반인의 쉼터이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골프장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남서쪽으로 내려오니, 골든 게이트 파크(Park)가 있었다.



〈사진 2〉 골든 게이트 파크의 일부

서쪽은 태평양 연안과 접하고, 남북 800미터, 동서 5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인조 공원이다. 여기엔 쉬고, 보고, 감상할 것들이 있으며, 식물원, 미술관 등이 있어 무지를 깨우치는 배움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구름 한 점 없는 청정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과 땅위에 여기가 낙원이 아닌가 싶었다. 낙원에

문혀 취해있는 동안 뇌리를 스치는 조그만 생각들을 시상으로 정리해본다.

시리도록 푸른 저 태평양은  
얼마나 푸르기에 검푸른가  
스쳐 가는 저 바람은 걸림이 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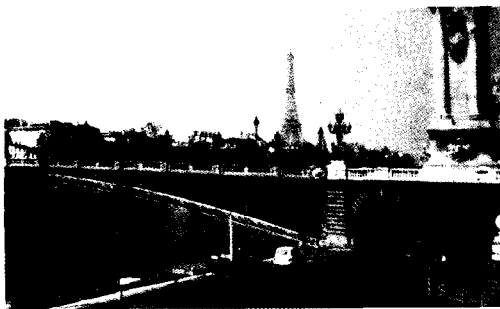
탈옥수 같은 마음으로  
해방감을 느끼니  
무한히 너를 만끽하고 싶구나...

스쳐간 족적들을 밟으며  
우리는 떠나야 하는 이방인  
흘러가는 시간이 못내 아쉽다.

## 2. 상송이 얽힌 알렉산더 3세교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에 축조된 가장 아름다운 교량을 꼽으라면 아마도 파리에 있는 알렉산더 3세 교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다리는 1899년 세워진 것으로, 전장 107.5미터의 결원 아치교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다리는 아이 빔 주재료에 외부는 주철재로 장식되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화환형 볼딩, 난간에는 장식용 촛대가 있어, 그 불빛으로 밤이 되면 세느강의 강폭을 가름할 수 있다.



〈사진 3〉 알렉산더 3세교의 외관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라면, 세느강은 파리를 관통하는 유일한 강이다. 이 강의 상류를 따라 시테섬까지 선상 유람을 해 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겠지만, 많은 교량을 지나면서, 우측으로 에펠탑을 볼 수 있고 알렉산더 3세교를 지나 시테섬, 생루이섬을 돌아 나오면 고딕 건축의 정수인 노들담 사원을 볼 수 있다. 하류로 방향을 돌리면 우측엔 루블 박물관, 콩코드 광장, 샹이요 궁전이 있다.

선상 유람을 하는 동안 관광객들은 프랑스의 고건축과 문화유산의 진수를 보게 된다.

한강 유람선을 타고 상 하류를 오르내리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란 오직 경쟁적으로 무질서하게 세워진 무미건조한 아파트들의 행렬이고, 강둑엔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만 보게된다. 여기에서 외국 관광객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외국인에게 영어로 한마디 인상을 물으면, “베리 굿, 아니면 빅 시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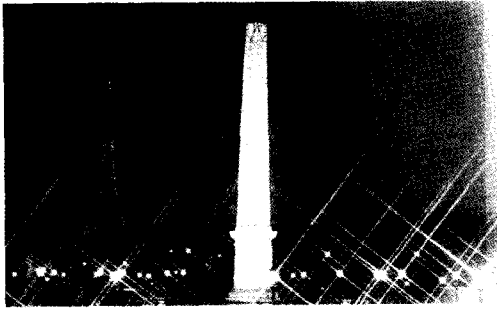
무엇이 ‘굿’ 이고, 무엇이 ‘빅’ 인지 아리송하다. 우리는 판에 박은 듯한 그네들의 속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을 맞아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추억에 남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두고 도시계획 측면과 교량에 대하여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선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알렉산더 3세 교량 주변을 보면, 그랑 빠레(대궁: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전시장) 뽀띠 빠레(소궁: 만국박람회 기념으로 지은 미술관), 콩코드 광장(화해의 광장)의 오벨리스크 등이 있고, 다리를 건너면 앙발리드 광장(나폴레옹 무덤과 전리품 등의 전시장) 등 많은 볼거리들이 있었다.

이런 유적들과 공원은 하루 종일, 아니 며칠을 본다면 지루할 것 같지 않았다.



(사진 4) 콩코드 광장의 야경

옛날의 도시계획이었지만 좁게 쓸 곳은 좁게, 넓게 쓸 광장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유 있게 그네들의 선견지명과 프랑스인들의 예술적인 심미안을 가미시킨 그네들의 계획에 다시 한번 부러움을 느낀다.

지나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한데 어우러지는 낭만의 장소, 이곳에는 얼마나 수많은 시간의 흔적들과 사람들의 애환이 맞물려 스쳐 지났을까를 생각하니, 이방인은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긴다.

강 위에 나라를 펴고  
맞아주며, 감싸주는  
너의 이름은 알렉산더 3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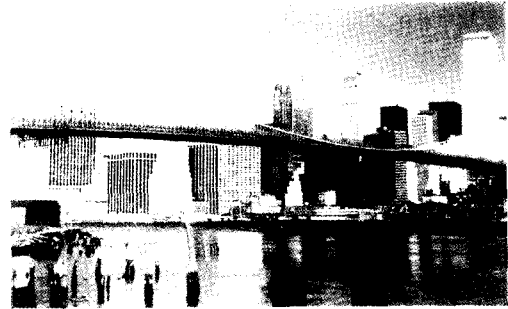
메마른 가슴과 가슴에  
사랑의 가교를 놓아준  
장인들의 솜씨에 고개를 숙인다.

### 3. 맨해튼의 명물인 브루클린 다리

뉴욕 동부의 강을 횡단하여 지구를 이어주는 브루클린 다리(Brooklyn Bridge)는 1883년 5월에 완공되어 개통 후 20여 년 간 세계 제일의 현수교

로 자리 매김 되었다고 한다.

현대 현수교의 효시라 불리는 이 다리는 488미터 스팬(span)에 측경간이 286미터, 총경간이 1,058미터의 큰 교량이다. 이 교량은 건설 도중 사고로 숨진 존 A. 로블링(Robeling)에 의해 설계되어, 현대의 현수교의 표준 설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5) 브루클린 다리의 외관

해질 무렵 브루클린 쪽에서 강을 건너면서 맨해튼 마친루에 드리워진 아름다운 실루엣은 뉴욕 관광의 최대 하이라이트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므로, 스카이라인이 변한 작금의 맨해튼의 실루엣은 이가 빠진 듯 어색하고, 참사에 의해 희생된 고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다리 타워 표지판에는 건설 도중 숨진 설계자와 다른 20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 당시 얼마나 공사가 어려웠을까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하다.

최초로 철 케이블을 사용한 19세기 기계공학의 귀한 업적을 보았지만, 설계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 여기엔 공사 도중 설계자의 희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워싱턴 로블링도 주임 기사로 활동하다 계속된 난공사로 건강이 나빠져 목숨을 잃고, 마지막으로 설계자의 부인인 에밀 리가 현장을 마지막까지 관리하여 완공

을 보았다니, '기술자 가족'의 희생정신이 여기에 배어있음을 보게 되었고, 이 일화는 교량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름 있는 유명세 뒤편에는 항상 희(喜)와 비(悲)가 엇갈리게 마련인가... 나그네는 아쉬운 서글픔에 발길을 돌리며 단상을 정리해본다.

여정에 지친 나그네의 피로가  
너를 보며 낮을 잃는다.  
안아주고, 품어준  
너의 날개에 바람의 흔적을 남긴다.

기술자들의 영혼을  
하늘에서 쉬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리.

#### 4. 최고(最古)를 자랑하는 파브리치오 다리

역사적으로 대도시들은 강을 끼고 발전한 모델이 많은데, 로마도 예외는 아니다. 로마는 테베레강이 시내를 관통하면서 산 역사의 증인으로 수천년 간 유유히 흐르고 있다.

이 강 위에 기원전 62년에 세워진 파브리치오(Fabricio) 다리가 세계의 최고를 자랑하며, 이 천년이 넘도록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있으니...



〈사진 6〉 파브리치오 다리의 외관

아치 공법의 이 교량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강의 동서를 잇는 주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 다리가 준공된 그 시대의 사회적 여건을 보면, 폼페이우스가 동방을 평정(BC 63)하고, 지중해 전역이 로마의 패권 하에 들어온 후,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손잡고 삼두정치가 진행될 시기였다.

절대 군주의 군웅들이 활개를 치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란 전대미문의 오만함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정도로 도로나 교량 기술이 발전하였다. 오늘날 우리의 부실 교량을 볼 때마다 한번씩 생각해 하는 다리가 바로 이 다리이며, 현대 교량사의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테베레강 쪽에서 보면 이 다리는 강 중간의 티베리나 섬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섬에는 16세기에 세워진 병원이 있고, 그 맞은편에 소 광장이 있어 강물의 흐름, 아치교와 선인들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의 기개를 느끼며 세월의 덧없음이 너리를 스쳐지나간다.

군웅들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최고의 파브리치오 다리야,  
너의 이맛돌엔 피와 땀이 얼었구나...

그때 노예들의 애환을 모르는 듯  
테베레강은 묵묵히 말이 없구나.

#### 5. 런던의 자존심 - 타워 브리지

선박이 문을 통과하고, 개폐하는 도로교 위에 인도교(Foot-bridge)가 있어 사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차량이 지나간다. 이런 다리가 어디에

있을까.

런던의 랜드마크인 타워 브리지가 바로 그러한 교량이다.

이 다리의 제원은 중앙부 경간이 79미터, 측경간 길이가 82.3미터, 인도교 높이가 43미터이니, 아파트 15층 높이 정도이다.

1886년 착공되어 8년만인 1894년에 완공되면서, 선박의 통행을 위해 한 시간에 한번 꼴로 아래층에 도로교를 개폐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다리를 개폐한다고 한다.

약 천톤의 무게인 다리 하나가 완전히 올려지는데 90초가 걸리며, 지금까지 한번도 기계가 고장이 나서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다고 한다.



〈사진 7〉 타워 브리지의 외관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영혼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안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템즈강을 향하여 투신자살이 심했던 이 다리는 1940년대에 다리 전체가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덮개를 벗겨내고, 외장을 유리 구조물로 하여 투신 자살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리 전체가 박물관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는데, 최근엔 이 다리가 영국인에게 더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교량은 종합 기술과 예술의 총 집합체이다. 그러니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

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을 위시하여 기계공학, 토목공학, 건축과 구조기술, 전기 엔지니어링, 실내 인테리어, 조각 등 예술과 기술의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 타워 브리지 프로젝트이다. 유서 깊은 이 강둑에서 나그네는 강 위의 그림 같은 입체 다리를 감상하며, 강변의 낙서를 그려본다.

템즈강 위에 앉은  
다섯 다리의 형제들아  
그 중에도 시선이 가는  
너의 이름은 타워 브리지...

너를 본 이방인은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리...

여기에도 머물고, 보고, 느끼며, 배움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이름 있는 다리 “명교(名橋)”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고 접수일 2002. 3. 18)

